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19.10 [26~29]

연재가 파탄에 직면한 것은 우목배미의 맨 꼭대기 부잣집 김 씨네에서 어쩔 수 없이 맨 아랫집 불들네로 방을 옮기면서부터였다. 불들네 아이들 극성으로 머릿속에 든 이미지들은 박살이 나기 일쑤였고, 그런 이유 말고도 매달 털미를 물고 늘어지는 생활비의 중압, 게다가 여성지 연재인데 실마 어떠랴 싶은 다소 시진방진 속계산이 소설의 치열성을 많이 빼앗아가 버린 때문이었다. 해서 「달래강」의 장편 연재는 그 희석되고 석고화된 관념의 득세와 원고 매수나 채우려는 군더더기로 인하여 ㉠ 사르트르도 무었도 아닌 어중간한 것으로 끝장을 보게 된 것이다. 그놈의 식어 빠진 「달래강」의 연재를 「소설계」에까지 끌고 가 2부를 써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1년 안에 장편 하나를 넘겨주기로 하고 그 잡지사로부터 미리 타 쓴 계약금 2백만 원 때문이었다. 자기 자신도 감동시키지 못하는 소설을 끄적이기 위해 책상 앞에 앉는다는 것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나 다름없었다.

독서를 게을리하기 시작한 지도 오래였다. 책들은 반도 채 못 읽어서 방바닥을 굴러다니다 관심권 밖으로 사라졌고, ㉡ 아랫마을 출입이 잦아지고 쓸데없는 술추렴이 늘고, 공연히 남의 집 우사를 들랑거리며 송아지 자랑이나 떠벌리고…… 위기였다. 이거 널 방법이 없었다.

아내에게는 감히 말을 꺼낼 엄두도 못 내면서 혼자 곰곰이 또 이사 갈 생각만 하고 있었다.

집안의 시끌썩한 분위기가 탓이었다. 그들을 한 가구씩 차례차례 내보내야 했다. 안주인에게 애당초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그들 중 한두 가구를 내보내라고 종용했다. 우리가 이사 들어올 때 달이 차면 정 씨를 내보내고 찬값에 안채를 준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와서 안주인은 난색을 표했다. 그리고 탄 방들도 방세가 네댓 달씩 밀려 있었고 또 그들은 선뜻 방을 비워 줄 사람들이 못 되었다.

㉢ 아니었다. 그것은 분위기를 탓할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쓸모없는 비계로 가득 찬 나의 대뇌 탓이었다. 더 이상 샘플을 저어 올릴 수 없는 나의 소설적 비재(菲才) 탓이었다. 고갈되고 고갈된 나머지 나는 농부보다 못한 상상력을 갖고 있었다.

㉣ 아니었다. 그건 나 혼자만이 감당해야 할 죄가 아니었다. 제2, 제3 장편이 연이어 안겨다 준 물질적 궁핍 때문이었다. 출판경기의 지독한 불황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래서 앙가주망적 지식인의 황금기였다고도 말할 수 있는 70년대 말기 정치 경제 사회 현상의 전 분야에다 겁도 없이 진찰기를 들이댈 수 있었던, 저 끝 간 데 없이 치솟던 문학 종사자들의 야심을 일거에 잠재워 버리고 만 일련의 격변 때문이었다. 한차례의 폭설과 함께 느닷없이 들이닥친 이 겨울의 주인은 입에다 마스크를 대지 않고 함부로 거리를 나돌아 다니지 말 것, 그리고 가능한 한 방안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앉아 있을 것 등등의 몇 가지 시민적 준수 사항을 공개리에 엄격히 하달했다. 글을 쓰는 우리 동료들은 연신 아얏아얏 소리를 내며 흠어져 가고 있었다. 문인들의 발길이 뜸해진 광화문과 낙원동의 술집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은근히 걱정이었다. 광장을 잃은 급진주의자들은 피켓을 철수하고 지하로 강당으로 기어들어 가고 있었다. ㉤ 인세를 받으며 활랑하게 방구석에 틀어박혀 대작을 꿈꾸고 있던 몇몇 동지들은 어쩔 수 없이 끼니에 털미를 잡혀 친방지속 출판사로 기업체로 신문 연재로 대학원으로 속속 복귀하고 있었다. 비평가와 신문 문화면은 연일 작품 기근, 신인 부제를 속삭여 대고, 소설에의 기대치가 절정에 이르렀던 70년대가 막을 내리자 기대를 잃은 다수의 독자 대중은 도시락을 싸서 들로 산으로 전자오락실로

TV의 스포츠 화면 속으로 뒤돌아볼 새 없이 때를 지어 달아나고 있었다.

[중간 부분의 줄거리] 조용한 방 한 칸을 구하기 위해 ‘나’는 여름 내내 고군분투한다. 겨우 이사를 하게 된 ‘나’는 절친인 ‘유형’이 작품전을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떠올리고 급히 전시장을 찾는다.

“뭘, 대충대충 고르지. 그까짓 방 하나 구하는 걸 갖구선 뭘 그래? 방 구한다는 게 대체 언제부터야?”

말은 거칠고 화를 참느라고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사실 뜨끔했던 나는 슬쩍 농으로 받아들일 속셈이었는데 그러나 그의 비난은 세찬 것이었다. 나는 이 야속한 친구에게 무언가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해 주고 싶었으나 무안을 참으며 자리를 피했다. 그날 밤 친구들이 모인 간단한 술자리에서도 친구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친구에게 잇을 수 없는 말을 남긴 것이었고, 그는 왜 친구 한 사람이 방 한 칸 때문에 그토록 많은 땀을 흘리며 전전긍긍하고 있었던가를 이해해 보기를 어언간 싫어하게 된 것인지도 몰랐다.

원주 가기 전의 문막은 유 형의 고향이었고 그쪽에는 그의 고향 동료들이 많았다. 그가 문막 읍내에서 썩 떨어진 시골 마을에다 아틀리에를 마련한 것은 그다운 일이었다. 그러나 ㉥ 그가 비단 친구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기를 싫어하게 된 것은 어쩌면 그 자가용을 굴리는 편한 상식인들과 상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부터일지도 몰랐다. 인간은, 특히 예술가는, 고통에 대한 사랑과 그 진정한 초월을 통해서만 존립이 가능하다는 소신을 그에게 들려줄 용기를 나는 못 갖고 있었다. 그건 나 자신부터가 충분히 생생한 신념을 꺼안고 살아가고 있을 때만 가능한 얘기였다. 그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 ㉦ 자기 구원과 천상적 가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놓인 이 구질구질한 지상의 눈물들을 생략해 버려야 한다고 그는 믿는 것일까? 그는 어쩌면 그까짓 방 한 칸 때문에 찢찢맨 저 한여름의 고투가 한갓 생선 장수의 고민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치부해 버린 것이었을까. 친구가 던진 그 슬픈 말 한마디가 잠시의 실수였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다.

-박영한, 「지상의 방 한 칸」-

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외양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인물의 입체적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 ② 공간적 배경의 변화를 통해 인물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나란히 배치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 ④ 집단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여 사건 전개의 양상을 다면화하고 있다.
- ⑤ 이야기 내부 서술자의 고백적 진술을 통해 자신이 처한 심리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작가로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얻지 못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창작과는 거리가 먼 일상의 일들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대작을 쓰겠다는 꿈 대신에 생계를 위해 생활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문인들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④ ㉣: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유형의 태도는 상식인들과 상대하는 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짐작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추구하는 가치에 도달하기 위해 그 과정에 놓인 고통을 외면해 버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 준 유형의 태도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고 있다.

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에서 마음껏 글을 쓸 수 있는 '방 한 칸'마저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은 예술가의 존엄 근거를 위협하는 열악한 상황을 의미한다. 그것은 물질적 곤궁, 정치적 격변, 그리고 대중문화의 범람 등으로 상징되는 세계이다. 이러한 상황은 예술가의 치열성을 희석시키고 그들을 상업주의에 물들게 하여 예술가로서의 의욕이 약화되도록 만든다. 그러나 이 작품의 주인공은 그러한 열악함 속에서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소설가로서의 꿈을 지켜 내려 하는데, 그것은 '지상의 방 한 칸'을 구하기 위한 고투의 과정으로 형상화된다.

- ① 군더더기로 여성지의 연재 원고 매수나 채우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은, 소설가로서의 치열성이 희석되어 버린 모습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아이들 극성으로 머릿속에 든 이미지가 박살나기 일쑤였던 붙들네에서의 생활은, 소설가로서의 존엄을 위협받는 주인공의 열악한 상황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글을 쓸 수 있는 조용한 방을 구하기 위해 주인공이 땀 흘리며 보낸 시간들은, 현실의 열악함 속에서도 작가로서의 꿈을 지키내기 위한 고투의 과정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소설에 대한 기대를 잃은 다수의 대중이 전자오락실과 TV의 스포츠 화면 등에 몰려들고 있는 것은, 주인공이 소설가로서 품었던 의욕을 약화시키는 상황의 하나로 볼 수 있겠군.
- ⑤ 친구에게 고통에 대한 사랑과 초월에 대하여 들려줄 용기를 낼 수 없었던 주인공의 모습은, 정치적인 격변의 상황을 외면해 버린 데서 오는 지식인으로서의 부끄러움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와 달리 창작과 관련된 인물의 자존감이 자기 성찰을 통해 견고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는 ㉠과 달리 인물이 추구해 온 예술 세계가 자신의 의식 속에서 부정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에서는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물의 의지를, ㉡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물의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에 이어 ㉡를 제시하여, 인물이 작가로서 바라보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호의적인 것에서 비판적인 것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과 ㉡가 연결되면서, 자신의 창작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인물의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보 기>

이 작품에서 마음껏 글을 쓸 수 있는 '방 한 칸'마저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은 예술가의 존립 근거를 위협하는 열악한 상황을 의미한다. 그것은 물질적 곤궁, 정치적 격변, 그리고 대중문화의 범람 등으로 상징되는 세계이다. 이러한 상황은 예술가의 치열성을 희석시키고 그들을 상업주의에 물들게 하여 예술가로서의 의욕이 약화되도록 만든다. 그러나 이 작품의 주인공은 그러한 열악함 속에서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소설가로서의 꿈을 지켜 내려 하는데, 그것은 '지상의 방 한 칸'을 구하기 위한 고투의 과정으로 형상화된다.

✓ 읽기 전 활동

'방 한칸'조차도 구하기 어려운 예술가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설임을 <보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술가의 존립 근거를 위협하는 열악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술가의 치열성을 희석시키고 상업주의에 물들게 하는 원인입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소설가로서의 꿈을 지켜 내려 하는데, 그것은 '지상의 방 한 칸'을 구하기 위한 사투의 과정으로 형상화됩니다.

연재가 파탄에 직면한 것은 우북배미의 맨 꼭대기 부잣집 김 씨네에서 어쩔 수 없이 맨 아랫집 불들네로 방을 옮기면서부터였다. 불들네 아이들 극성으로 머릿속에 든 이미지들은 박살이 나기 일쑤였고, 그런 이유 말고도 매달 덜미를 물고 늘어지는 생활비의 중압, 게다가 여성지 연재인데 설마 어떠랴 싶은 다소 시건방진 속계산이 소설의 치열성을 많이 빼앗아가 버린 때문이었다. 해서 「달래강」의 장편 연재는 그 희석되고 석고화된 관념의 득세와 원고 매수나 채우려는 군더더기로 인하여 사르트르도 무엇도 아닌 어중간한 것으로 끝장을 보게 된 것이다. 그놈의 식어 빠진 「달래강」의 연재를 「소설계」에까지 끌고 가 2부를 써 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1년 안에 장편 하나를 넘겨주기로 하고 그 잡지사로부터 미리 타 쓴 계약금 2백만 원 때문이었다. 자기 자신도 감동시키지 못하는 소설을 끄적이기 위해 책상 앞에 앉는다는 것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나 다름없었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주인공의 열악한 상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여성지에 연재하는 작품이 '파탄'에 직면했다며 그 이유로 아이들의 극성, 생활비의 중압, 그리고 시건방진 속계산을 꼽습니다. 그리하여 작가는 '달래강'의 연재를 어중간하게 계속 이어가는데, 이미 열정이 식었음에도 2부 소설까지를 쓰게 된 이유는 잡지사로부터 장편 하나를 넘겨주기로 하고 계약금 2백만원을 미리 받아서 썼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인 작가는 이러한 상황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나 다름없'다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서를 게을리하기 시작한 지도 오래였다. 책들은 반도 채 못 읽어서 방바닥을 굴러다니는 관심권 밖으로 사라졌고, 아랫마을 출입이 잦아지고 쓸데없는 술추렴이 늘고, 공연히 남의 집 우사를 들랑거리며 송아지 자랑이나 떠벌리고..... 위기였다. 이겨 낼 방법이 없었다.

아내에게는 감히 말을 꺼낼 엄두도 못 내면서 혼자 곰곰이 또 이사 갈 생각만 하고 있었다.

집안의 시끌썩한 분위기가 탓이었다. 그들을 한 가구씩 차례차례 내보내야 했다. 안주인에게 애당초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그들 중 한두 가구를 내보내라고 종용했다. 우리가 이사 들어올 때 달이 차면 정 씨를 내보내고 잔값에 안채를 준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와서 안주인은 난색을 표했다. 그리고 만 방들도 방세가 네댓 달씩 밀려 있었고 또 그들은 선뜻 방을 비워 줄 사람들이 못 되었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주인공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독서를 게을리하며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이 문제임을 인지하고 있던 주인공은 아내에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이사를 갈 생각만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싫었던 주인공은 집주인에게 한두 가구를 내보내라고 이야기해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었다. 그것은 분위기를 탓할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쓸모없는 비계로 가득 찬 나의 내보 탓이었다. 더 이상 생물을 저어 올릴 수 없는 나의 소설적 비재(菲才) 탓이었다. 고갈되고 고갈된 나머지 나는 농부보다 못한 상상력을 갖고 있었다.

아니었다. 그건 나 혼자만이 감당해야 할 죄가 아니었다. 제 2, 제3 장편이 연이어 인겨다 준 물질적 궁핍 때문이었다. 출판경기의 지독한 불황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래서 앙가주망적 지식인의 황금기였다고도 말할 수 있는 70년대 말기 정치 경제 사회 현상의 전 분야에다 겁도 없이 진출하기를 들이댈 수 있었던. 저 끝 간 데 없이 치솟던 문학 종사자들의 야심을 일거에 잠재워 버리고 만 일련의 격변 때문이었다. 한차례의 폭설과 함께 느닷없이 들이닥친 이 겨울의 주인은 입에다 마스크를 대지 않고 함부로 거리를 나돌아 다니지 말 것, 그리고 가능한 한 방 안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앉아 있을 것 등등의 몇 가지 시민적 준수 사항을 공개리에 엄격히 하달했다. 글을 쓰는 우리 동료들은 연신 아얏아얏 소리를 내며 흩어져 가고 있었다. 문인들의 발길이 뜸해진 광화문과 낙원동의 술집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은근히 걱정이었다. 광장을 잃은 급진주의자들은 피켓을 철수하고 지하로 강당으로 기어들어 가고 있었다. 인세를 받으며 할랑하게 방구석에 틀어박혀 대작을 꿈꾸고 있던 몇몇 동지들은 어쩔 수 없이 끼니에 덜미를 잡혀 천방지축 출판사로 기업체로 신문 연재로 대학원으로 속속 복귀하고 있었다. 비평가와 신문 문화 면은 연일 작품 기근, 신인 부재를 속삭여 대고, 소설의 기대치가 절정에 이르렀던 70년대가 막을 내리자 기대를 잃은 다수의 독자 대중은 도시락을 싸서 들로 산으로 전자오락실로 TV의 스포츠 화면 속으로 뒤돌아볼 새 없이 메를 지어 달아나고



있었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주인공은 자신이 무기력해지는 이유를 분위기를 탓할 일 이 아니라 '나의 대뇌'가 '비계로 가득' 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소설적 재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하던 주인공은 이어 '나 혼자만이 감당해야 할 죄가 아니었다'며 물질적 궁핍과 정치적 격변, 그리고 대중문화의 범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보기>에서 언급했듯 주인공 이 예술가로서의 존립 근거를 위협받는 열악한 상황에 처 한 이유가 물질적 궁핍, 정치적 격변, 대중문화의 범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의 즐거리] 조용한 방 한 칸을 구하기 위해 '나'는 여 름 내내 고군분투한다. 겨우 이사를 하게 된 '나'는 절친인 '유 형' 이 작품전을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떠올리고 급히 전시장을 찾는다.

"뭘, 대충대충 고르지. 그까짓 방 하나 구하는 걸 갖구선 뭘 그래? 방 구한다는 게 대체 언제부터야?"

말은 거칠고 화를 참노라고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사실 뜨끔했던 나는 슬쩍 농으로 받아들이 속셈이었는데 그러나 그의 비난은 세찬 것이었다. 나는 이 야속한 친구에게 무언가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해 주고 싶었으나 무안을 참으며 자리를 피했다. 그날 밤 친구들이 모인 간단한 술자리에서도 친구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친구에게 잊을 수 없는 말을 남긴 것이었고, 그는 왜 친구 한 사람이 방 한 칸 때문에 그토록 많은 땀을 흘리며 진전궁궁하고 있었던가를 이해해 보 기를 어언간 싫어하게 된 것인지도 몰랐다.

원주 가기 전의 문막은 유 형의 고향이었고 그쪽에는 그의 고향 동료들이 많았다. 그가 문막 읍내에서 썩 떨어진 시골 마을 에다 아틀리에를 마련한 것은 그다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가 비단 친구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기를 싫어하게 된 것은 어쩌면 그 자가용을 굴리는 편한 상식인들과 상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부터일지도 몰랐다. 인간은, 특히 예술가는, 고통에 대한 사랑과 그 진정한 초월을 통해서만 존립이 가능하 다는 소신을 그에게 들려줄 용기를 나는 못 갖고 있었다. 그진 나 자신부터가 충분히 생생한 신념을 껴안고 살아가고 있을 때만 가능한 얘기였다. 그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 자기 구원과 천 상적 가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놓인 이 구질구질한 지 상의 눈물들을 생략해 버려야 한다고 그는 믿는 것일까? 그는 어쩌면 그까짓 방 한 칸 때문에 찼찼맨 저 한여름의 고투가 한갓 생선 장수의 고민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치부해 버린 것이었 을까. 친구가 던진 그 슬픈 말 한마디가 잠시의 실수였으면 하 고 간절히 바랐다.

-박영환, 「지상의 방 한 칸」-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결국 조용한 방 한 칸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던 주인공은 절친인 '유 형'이 작품전을 한다는 사실을 놓치고 맙니다. 뒤늦게나마 이를 떠올린 주인공은 그의 전시장을 찾지만, 그는 '방 하나 구하는' 행위에 노력을 기울이는 주인공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며 크게 화를 냅니다. 주인공은 '유 형'의 이러한 태도에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기를 싫어하' 게 되어버렸다고 이 '편한 상식인들'을 상대하면서 변 하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노력을 '한 갓 생선 장수의 고민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린 '유 형'의 말이 단순히 실수이기를 바라며 자신의 소신을 말할 용기를 내지 못해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작품 총평

내용의 큰 줄기를 잡고, 그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 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주요한 해석 방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내용의 큰 줄기는 '예술가의 존립 근거를 위협 하는 세상'이며, 이를 주인공이 '방'을 찾음으로써 예술가 로써의 꿈을 지켜 내고자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⑤

① 인물의 외양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인물의 입체적 성격을 부각하 고 있다.

→ 인물의 외양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 물의 외양 묘사는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며 제시되고 있지만, 이를 세밀한 묘사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인물의 입체적 성격을 부각하지도 않습니다.

② 공간적 배경의 변화를 통해 인물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 여 주고 있다.

→ 처음에는 자신의 집에 대해 서술하다가 전시장을 찾 아가기에 공간적 배경이 바뀌었다고는 볼 수 있으나, 갈등 해소 과정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③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나란히 배치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 시키고 있다.

→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나란히 배치하고 있지 않습 니다. 작품 내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모두 사건의 흐름 에 따라 하나씩 제시되고 있습니다.

④ 집단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여 사건 전개에 영향을 다변화하고 있다.

→ 집단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선, 집단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예술가를 상징하는 주인공과 현실적인 문제들 간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으며, 개인과 사회 간의 갈등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지도 않은데, 사건 전개에 영향을 주인공의 시점에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⑤ 이야기 내부 서술자의 고백적 진술을 통해 자신이 처한 심리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이야기 내부 서술자인 '나'의 고백적 진술을 통해 자신이 처한 심리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슬쩍 농으로 받아들일 속셈이었는데 그러나 그의 비난은 세찬 것이었다'는 고백적 진술을 통해 당황한 주인공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 사르트르도 무엇도 아닌 어중간한 것으로 끝장을 보게 된 것이다.

㉡ 아랫마을 출신이 찾아지고 쓸데없는 술추렴이 늘고, 공연히 남의 집 우사를 들랑거리며 송아지 자랑이나 떠벌리고…… 위기였다.

㉢ 인세를 받으며 할랑하게 방구석에 틀어박혀 대작을 꿈꾸고 있던 몇몇 동지들은 어쩔 수 없이 끼니에 달미를 잡혀 천방지축 출판사로 기업체로 신문 연재로 대학원으로 속속 복귀하고 있었다.

㉣ 그가 비난 친구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기를 싫어하게 된 것은 어쩌면 그 자기용을 굴리는 편한 상식인들과 상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부터일지도 몰랐다.

㉤ 자기 구원과 천상적 가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놓인 이 구질구질한 지상의 눈물들을 생략해 버려야 한다고 그는 믿는 것일까?

① ㉠: 작가로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얻지 못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 작가로서 '어중간한 것'으로 자신의 연재물을 얻어내었다는 점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주인공의 시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② ㉡: 창작과는 거리가 먼 일상의 일들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창작과는 관련이 없는 일상의 일들인 '술추렴', '송아지 자랑'과 같은 일들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창작에서 흥미를 잃은 주인공이 독서마저 게을리 하며 일상의 일들로 시간을 보내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③ ㉢: 대작을 쓰겠다는 꿈 대신에 생계를 위해 생활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문인들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대작을 꿈꾸고 있던 몇몇 동지'들이 '끼니에 달미'를 잡혀 출판사, 기업체, 대학원과 같은 생활 전선에 뛰어들 수 밖에 없는 문인들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④ ㉣: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유형의 태도는 상식인들과 상대하는 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짐작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기를 싫어하'는 유형의 태도는 '편한 상식인'들과 대화하며 예술가로서의 생각을 버리고 상업주의에 물들어 예술가로서의 의욕이 약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에서 등장하는 '편한 상식인'들이 긍정적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상업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유형은 이들과 상대하며 상업주의에 물들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⑤ ㉤: 추구하는 가치에 도달하기 위해 그 과정에 놓인 고통을 외면해 버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 준 유형의 태도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고 있다.

→ '자기 구원과 천상적 가치'와 같은 추구하는 가치에 도달하기 위해 '그 과정에 놓인 이 구질구질한 지상의 눈물들을 생략'해 버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 준 유형의 태도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⑤

<보 기>

이 작품에서 마음껏 글을 쓸 수 있는 '방 한 칸'마저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은 예술가의 존립 근거를 위협하는 열악한 상황을 의미한다. 그것은 물질적 곤궁, 정치적 격변, 그리고 대중문화의 범람 등으로 상징되는 세계이다. 이러한 상황은 예술가의 치열성을 희석시키고 그들을 상업주의에 물들게 하여 예술가로서의 의욕이 약화되도록 만든다. 그러나 이 작품의 주인공은 그러한 열악함 속에서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소설가로서의 꿈을 지켜 내려 하는데, 그것은 '지상의 방 한 칸'을 구하기 위한 고투의 과정으로 형상화된다.

① 군더더기로 여성지의 연재 원고 매수나 채우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은, 소설가로서의 치열성이 희석되어 버린 모습으로 볼 수 있겠군.

→ 군더더기로 '원고 매수나 채우려는' 주인공의 모습은 '소설의 치열성'이 많이 빼앗긴 상태로, 소설가로서의 치열성이 '생활비의 중압'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의해 희석되어 버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아이들 극성으로 머릿속에 든 이미지가 박살나기 일쑤였던 붙들네에서의 생활은, 소설가로서의 존립을 위협받는 주인공의 열악한 상황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겠군.

→ ‘붙들네 아이들 극성’으로 ‘머릿속에 든 이미지들은 박살’이 나기 일쑤였고, 이는 소설가로서의 ‘소설의 치열성’을 위협받는 주인공의 열악한 상황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글을 쓸 수 있는 조용한 방을 구하기 위해 주인공이 땀 흘리며 보낸 시간들은, 현실의 열악함 속에서도 작가로서의 꿈을 지켜 내기 위한 고투의 과정으로 볼 수 있겠군.

→ 글을 쓸 수 있는 ‘조용한 방 한 칸’을 구하기 위해 ‘여름 내내 고군분투한’ 시간들은 현실의 열악함 속에서도 작가로서의 꿈을 지켜 내기 위한 고투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소설에 대한 기대를 잃은 다수의 대중이 전자오락실과 TV의 스포츠 화면 등에 몰려들고 있는 것은, 주인공이 소설가로서 품었던 의욕을 약화시키는 상황의 하나로 볼 수 있겠군.

→ ‘기대를 잃은 다수의 독자 대중은 도시락을 싸서 들로 산으로 전자오락실로 TV의 스포츠 화면 속으로 뒤돌아볼 새 없이 때를 지어 달아나고 있’는 것은 주인공이 소설가로서 품었던 의욕을 약화시키는 상황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⑤ 친구에게 고통에 대한 사랑과 초월에 대하여 들려줄 용기를 낼 수 없었던 주인공의 모습은, 정치적인 격변의 상황에서 외면해 버린 데서 오는 지식인으로서의 부끄러움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 친구에게 고통에 대한 사랑과 초월에 대하여 들려줄 용기를 낼 수 없었던 주인공의 모습은, ‘나 자신부터가 충분히 생생한 신념을 껴안고 살아가고 있을 때만’ 이러한 용기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주인공이 자신의 신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드러내는 부분일 뿐, 지식인으로서의 부끄러움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 ㉠ 아니었다.
- ㉡ 아니었다.

① ㉠은 ㉡와 달리 창작과 관련된 인물의 자존감이 자기 성찰을 통해 견고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과 ㉡는 둘 모두 창작과 관련된 인물의 자존감이 자기 자신과 주변을 성찰함으로써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 경우 ‘나는 농부보다 못한 상상력’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의 경우 ‘혼자만이 감당해야 할 죄가 아니’라며 자기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② ㉠은 ㉠과 달리 인물이 추구해 온 예술 세계가 자신의 의식 속에서 부정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과 ㉡ 모두 인물이 추구해 온 예술 세계가 각각 자신의 무능함과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부정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③ ㉠에서는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물의 의지를, ㉡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물의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 ㉠에서는 자신의 ‘소설적 비재’를 탓하며 자신이 소설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 버린 문제를 한탄하는 모습을, ㉡에서는 ‘물질적 궁핍’이라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한탄하며 적응해나가고 있던 인물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④ ㉠에 이어 ㉡를 제시하여, 인물이 작가로서 바라보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호의적인 것에서 비판적인 것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에 이어 ㉡를 제시하여, 인물이 자신이 왜 소설에 대한 흥미를 잃고 무기력해진 것인지에 대해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은 항상 비판적이었던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⑤ ㉠과 ㉡가 연결되면서, 자신의 창작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인물의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 ㉠과 ㉡가 연결되면서, 자신의 창작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단순히 ‘소설적 비재’의 문제를 넘어 ‘물질적 궁핍’, ‘일련의 격변’, 그리고 ‘기대를 잃은’ 독자층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인물의 인식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